

# 광주서 만나는 프랑스 현대미술

아트타운갤러리 개관 4주년 기념 내달 1일까지 '프랑스 현대작가전'

프랑스 화가 8명 구상·추상 넘나드는 작품 42점 전시  
韓·佛 오송갤러리 연계...재불화가 정하민 작가도 출품



로베르 부드로아 작 '몽마르트르 일별'



에르베 로알리에 작 '서양의 타오르는 빛'

▶4월1일까지 '프랑스 현대작가전'을 여는 아트타운갤러리 전시 구성 모습.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전세계 미술인들이 모여 작업과 공부를 하는 미술 용광로다. 거의 모든 미술 사조(思潮)가 프랑스에서 출발했을 만큼 선진문화를 주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프랑스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마련됐다.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아트타운갤러리(관장 정인)가 개관 4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현대작가전’을 4월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파리 중심 회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8명이 참여해 회화 42점을 선보인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추상화와 풍경화들이 번갈아가며 걸려있다. 또 시리즈 작품 2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상단에는 5호 크기 작품을 설치해, 나란히 나열하는 일반적인 진열방식을 벗어난다.

정인 관장은 “이번 전시는 개관을 기념해 광주 작가와 콜렉터들에게 프랑스 선진 현대미술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어떻게 하면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작가별로 작품을 배치하기 보다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크기, 색채를 고려해 전시장을 꾸몄다”고 소개했다.

전시는 프랑스 파리와 한국에서 오송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송정철 관장과 정인 관장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프랑스대사관 공보관, 프랑스문화원 문정관 등을 역임한 송 관장은 지난해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양국 작가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아내가 해남 태생이다.

송 관장은 “참여 작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작품 위주로 고려했다”며

“한국작품과 비교를 하면 프랑스 작가들은 작품에 담은 이야기를 최대한 절제해 관람객들에게 사색의 여유를 준다”고 말했다.

전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은 아르크라투르(Arcade Latour) 작가의 ‘분열의 빛’이다. 인쇄잉크, 조각칼 등을 사용해 그린 추상화다.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난 라투르는 15세 때 개인전을 열고 교황 요한바오르2세의 차량을 디자인하는 등 다재다능한 작가다. 작품값은 1050만원, 약 50호 크기임을 고려했을 때 크게 비싸지 않다.

송 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는 작품값이 의외로 싸다”며 “단,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는 크게 오르며, 한국작가 작품이 오히려 비싼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 가장 비싼 작품은 에르베 로알리에(Herve Loilier)의 ‘학이 있는 경지’로 3000만원이다.

재불작가 작품도 출품했다. 정하민 작가의 ‘바라는 마음에서’, ‘추억이 빛은 나’ 등 7점이다. 연꽃, 원앙 등 한국 토속 소재를 형이상학적 형상으로 표현했다. 프랑스에서는 접하기 힘든 동양적 정서를 담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작업재로도 있다. 건축가로 활동했던 로베르 부드로아(Robert Boudroit)가 제작한 ‘몽마르트르 일별’, ‘몽 생 미셀’은 평면처럼 보이는 조각작품이다. 대리석 가루를 캔버스에 발라 조각칼로 프랑스 풍경을 새긴 후 채색을 한 작품이다.

대부분 작품이 액자에 걸려 있지 않은 만큼 손상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입장료를 받는다. 성인 3000원, 청소년(대학생 포함) 2000원이다. 입장료를 낼 정도면 작품을 소장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겠다는 생각에서다. 문의 062-529-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봄을 기다리는 마음...김종경 초대전

예술의 거리 갤러리S 12일까지 개관 기념전



▶점점홍

예술의 거리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S가 개관 기념으로 김종경 초대전(회화학과) 교수 초대전을 12일 까지 연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춘흥(春興): 노닐다’를 주제로, 생명력이 가득한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최신파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물감이 아닌 대리석가루나 황토를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 유화, 수묵 등도 사용했고 콜라주 기법을 도입한 점도 엿보인다. 지상(82cm)과 지하(50cm)로 나눠 배치했다.

작품 ‘춘흥’은 황토를 사용한 화려한 색감으로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형상화시켰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콜라주로 표현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생명력과 향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지하에 전시된 ‘암향(暗香)’은 은은한

매화향을 캔버스에 옮겼다. 큼직한 매화꽃을 중앙에 배치하고 바람이 훑어갈 듯 자유롭게 펼쳐진 하얀 선으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밖에 ‘생성’, ‘만고상정’, ‘봄의 여명’ 등 재료가 지닌 장점을 끌어내 자연의 숨겨진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 교수는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미술대학에 근무하면서 학생부처장, 미술대학장, 디자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개인전 32회, 단체전 300회를 가졌고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회 등 각종 미술공모전에서 40여 회 수상했다.

한편 갤러리S는 13일부터 22일까지는 개관기념전 2부로 ‘박호영 초대전’을 열 예정이다. 앞으로 전시를 비롯해 지하공간 회의실 무료대여, 미술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10-7340-01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먼 산 진달래 필때면’...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3월 행사



또 ‘고향의 봄’, ‘봄이 오면’, ‘봄처럼’, ‘봄처럼’ 등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회비 1만원의 내면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cafe. 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600-7135, 010-2665-2328.

/김미은기자 mekim@

10일 K아트센터

‘먼 산 진달래 필 때면/ 텅 빈 가슴 설움만 남아/ 이별의 아픔 곁에 물들어 갑니다’(이상규 시·정애련 곡 ‘진달래’ 중)

꽃샘 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지만 봄은 봄이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먼 산 진달래 필때면’을 주제로 봄을 노래하는 3월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강숙자 오페라 라인 K아트센터(서광신협 4층).

이번 음악회는 광주 출신 작곡가 정애련(사진)씨의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다. 전남대와 이탈리아 G. Spontini 시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정씨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곡들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진달래가곡제 조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회원 연주로 테너 하석천·박안수·김의호·박진영, 소프라노 이명숙·심옥호·조민희, 바리톤 이상률, 소프라노 성화진씨 등이 ‘별을 캐는 밤’, ‘날마다 이별’, ‘봄날 그 이후로도’ 등을 부른다.

초청 성악가 소프라노 양송이(명지대 예술종합원 강사)씨는 김성춘씨의 시에 멜로디를 부친 ‘지금의 봄’과 ‘연꽃의 노래’를 들려준다.

###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몸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퐁피두센터

노중현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정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춘열  
FA '100억' 대어 기아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

###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 뒤 관현전 18)

---

###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

###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③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

### 문화 화재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

### 배극남의 대중문화X파일④

소설테이너와 폴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

---

### 박성현 기자의 문화일기⑤

‘한국소설이 좋아서’ 50권 선정 전자서평집

---

###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⑥

문학과 궁국의 뜨거운 품은 정충 화신항

---

###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영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

### 프렌드 따라잡기⑦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까 'So, yolo'

---

### 남도 문화특보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투력 타고 감성만 안팎  
연탄불고기백반 갈비탕 등 전라도의 맛  
노트연마관수신사상 국가어항정거장